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에배 7시
금요일에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8월 5일 (제96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거짓과 진실의 차이

거짓과 어두움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자 어두움에 속했던 자들이 혼비백산했다. 이는 마치 전기 스위치를 넣어 밝아지면 어두움 속에서 살던 쥐나 바퀴벌레가 정신없이 도망하고 어디론가 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주관하며, 사람들을 죄 아래 억압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오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되레 배척하고 죽였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들의 신앙이 거짓됨이, 자신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 같이 거짓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

그렇다. 거짓은 진실을, 어두움은 빛을 가장 싫어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이 진실 앞에서 거짓이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하는 일들이 아닌가. 사울이나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거짓은 빛 앞에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3).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다. 365일 매일매일 진실하라는 말씀이다. 진실된 믿음으로 살고(딤후1:5),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요4:23~24), 신자로서의 진실된 삶을 살며(엡4:25),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승리하게 하자(딤후3:15).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 진실된 자에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건강할 때 보약을 먹어야 한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하고, 풍년 때에 창고를 지어야 한다. 2주간에 걸친 하계산상집회는 한 재의 보약을 먹은 것이고, 시든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불을 되살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풍년 때에 큰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한 것과 같았다.

둘째 주, 단에 서신 총회장 목사님은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오늘은 가난을 벗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부자가 되려면 돈 씨를 뿌리고, 돈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무씨를 뿌려야 무를 거두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치이듯, 돈 씨를 뿌려야 돈

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가난하여 궁상을 떨고 사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슴이 아프고 저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고후9:8). 여러분, ‘사랑=물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밭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머리에 들어간 것이 많으면 나오는 것도 많은 것이 이치이듯,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것도 변개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후9:10~11)는 말씀은 심을 마음이 있으면 씨도, 심을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막14:3~9), 예수를 섬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눅8:3),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루디아(행16:14)…, 모두 심어 많은 것을 거둔 자들입니다.

심을 때는 미리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야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고후9:7). 계산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눅6:38).

여러분, 심어야 나고, 많이 심어야 많이 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풍성한 자들이



2018 하계산상집회(7월 23일~8월 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사가 잘 살라고 설교하면 잘못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

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액수나 양(量)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과부가 두 렵돈을 연보게에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눅21:3). 주님이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심은 주님이 돈이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되십시오.”

또한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도 간접자본을 이용하고, 정보에 능하며, 죽은 것이나 망한 것들을 잡아 성공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다.

이 세상을 사는데 힘이 되고, 응용하기에 유용한 것이 돈이다.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늘에 쌓는 것이 동록이 슬지 않고 도적맞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다(마6:19).

기자 신묘수

jesus5526@gmail.com



예배전 운동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



매시간마다 은혜가 넘쳤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약2:10~17)



총 있으면 실탄을 준비하라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말하나마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2:26).

현재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치 총은 최신형으로 멋진 것을 가지고 있으나 총알이 없는 자와 같고, 웃은 잘 입고 명품백은 들었으나 실제 그 백 속에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또 성경적 지식은 너무 많아 머리는 커졌는데, 움직이지 않아 다리는 얹디얹은 가분수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져 다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고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행함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그러나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 2:21~2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야 비로소 그의 의로움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2:25)는 말씀도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으나 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시니라”(수2:11)고 고백함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로 고백한 것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안전하게 다른 길로 피신시켜줌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했고, 하

나님은 그녀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녀와 가족들이 죽임을 당치 않았고(히11:31),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11:31)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곧 행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산 믿음이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 1:18~19)고 한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설교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롬10:10), 그것을 행할 때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실과 바늘과 같고, 노와 배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으

로만 하는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이 말은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말고 어서 가라’는 말을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경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25:42~4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영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

(막 9:29)는 말씀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 마귀의 밥이 되어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으니 짐승에게 당할 수밖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잡아야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또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하고, 말로만이 아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옥에 있는 자들을 살피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

라”(벧전3:1~2)라는 말씀을 봅시다.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자, 안 가면 지옥 간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소리나 버럭 버럭 지르고, 구역예배 간다고 남편 밥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실 겁니까? 행함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와 전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듯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행함=기적과 축복’이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약2:22).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인은 결단하고 행동하나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손바닥을 서로 비비면 열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비벼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자는 ‘아! 손바닥만 비벼도 열이 나니까 나가서 뛰면 더욱 열이 발생하여 건강해지겠구나.’ 하고는 나가서 운동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아는 자는 더욱 행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만한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믿음, 산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2018 여름성경학교

7월 27일~29일 - 인천
7월 29일~31일 - 서울



하나님 중심! 예수중심 어린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

것을 주입하느냐가 극히 중요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상태다. 거기에 무엇을 그리느냐는 전적인 부모의 몫이다. 그래서 성경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을 때(시127:4),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신6:10~11). 이것이 예수중심의 아이들이 기쁨으로 여름성경캠프에 참여하는 이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곧 세계 중심으로 사는 삶이요, 만인의 머리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불행이 훈장이 되다

스무 살에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랑하던 사람은 떠나고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안마를 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작정을 했다. 하나님에 주신 아이라 믿고 낳았지만 자신은 키울 수가 없어서 친척에게 매달 돈을 주며 열여덟 살까지 양육을 부탁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크면서 소경인 엄마가 안마로 번 돈으로 자신이 살고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창피해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자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까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얻었다.

그러나 딸은 “내 엄마는 소경이라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소경의 딸로 태어났어? 왜 엄마 때문에 내가 불행해야해? 왜 나를 낳았어? 차라리 고아원에라도 보내지 그랬어.” 하면서 늘 엄마와 부딪치며 괴로워했고, 고통을 잊으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돈을 훔쳐가도 못 보니까 안심하고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가서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방탕했다. 그리고 밤늦도록 안마를 하고 더듬으면서 돌아오는 엄마가 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거기에 주변의 친척들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자 아이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대학에서 일 년간의 해외봉사활동 모집이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간다는 소리에 엄마도 안보고 주위 사람 소리도 안 듣게 해외라도 다녀오면 낫겠

다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딸은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며 산 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기에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자꾸 다른 학생들과 부딪치기 시작하자 ‘아,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담당 선교사의 사모님이 걱정이 되어 오셔서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다. 소경 엄마가 없는 탄자니아에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뭔가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들 모두와 부딪치니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칠어진 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돌아갈 거니까 신경 쓰세요.”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도와준다고요? 정말 도울 수 있나요? 나 지금 죽고 싶는데 죽여줄 수 있나요? 우리 엄마는 소경이고 난 소경의 딸이에요.”라고 큰소리로 울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주위에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 “사실은 나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힘들어.,” “사실은 나도”, “나도…” 하고 같이 울었다. 다들 말은 안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이는 처음 알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 “네가 엄마에게 화를 내고 안 좋은 나쁜 말을 할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니?” 하고 사모님이 묻자 이 딸은 깜짝 놀랐다. ‘내가 괴로운 건 엄마 때문이야.’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쪽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이 사모님의 이야기는 충격이었고, 생전 처음으로 엄마를 생각했다. 자신의 불

행은 소경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이에게 이 사모님은 자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딸은 엄마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 이국땅 탄자니아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스무 살 내 나이 때에 사고로 눈이 안 보이면서도 나를 낳고 엄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있던 딸의 마음을 안 선교사님이 얼마 후 딸의 생일날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해야 한 다며 휴대폰을 내밀었고, 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 잘 있어? 밥은 잘 먹고 있어?” 하며 걱정하는 엄마에게 딸은 울면서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라고 생전처음으로 엄마에게 감사를 전했다. 엄마도 그 말을 듣고 같이 울었다.

일 년을 마치고 학생들의 귀국발표회 때에는 엄마와 딸이 나란히 참석했고, 그 귀국발표회는 춤과 노래대신에 이 여학생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했는데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이 다 울었다고 한다. 힘들고 고통스럽던 지난날이 훈장처럼 빛나는 날로 변한 것이다.

고통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때문 필요하다.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인지, 내어놓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괴로웠던 날은 훈장이 되어 빛날 수도,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대화 없는 동행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으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방향만 같을 뿐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라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 아래 나를 인도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의 대화가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방향만 같은 발걸음일 뿐일까?

대화가 없는 동행은 동행이 아니다. 방향이 같더라도 서로에게 어색한 발걸음일 뿐, 결국 속도의 차이를 두고 있게 된다. 반면, 대화가 있는 동행은, 특히 그대화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끊임없고,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위로 받을 수 있는 대화라면 정말 행복한 동행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대화가 꼭 특정한 형식일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는 기도의 목적에 따라 말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방언이나 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속삭임이나 울음, 한숨 섞인 탄식이 될 수도 있다. 형태는 다르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서로의 마음이 닿을 때 거기서 교감과 공감미,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다.

날씨가 화창할 때 하나님께 말한다. 오늘처럼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가 내려 하늘이 어두울 땐 오늘은 웬지 기분이 꿀꿀한데 하나님 기분은 어떠시냐고 묻는다. 길을 걷다가, 주변 풍경을 바라보다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문득문득 하나님께 말을 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5:24).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 생활 속의 잠언 ::

주일에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왕복 세 시간 가량을 도로에서 보내야한다. 건강할 때는 세 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피곤한 날이면 주일에 세 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힘에 겨울 때가 많았다. 차선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주일에배를 드리다보니 참으로 편했다. 그러나 가끔씩 스마트폰을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도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나가야 하는데….’라는 막연한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사업상 또는 여행으로 서울을 비우는 시간이 잦아졌고, 때로는 육체의 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보니 충분히 교회를 나갈 수 있음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일 교회에 출석을 하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영상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목사님의 메시지에서도 주일은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접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용감하게 사업상 출

장이라는 명목을 대면서 해외로 발걸음을 옮겼다. 출발 한 달 전부터 주님께서 성경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일에배의 중요성을 시시때때로 알려주셨건만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던 것 같다. 비행기를 타고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손등 위에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어쩌랴?’라는 마음으로 5시간 비행을 마친 후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다리에도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온 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밤에는 극심한 내출혈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님, 지팡이로 나를 툭툭 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끝내 나의 뜻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막대기로 드디어 나를 치시는군요.’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들었다. 한국에서 연락을 받은 의사 선생님의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고통의 밤을 회개기도를 하면서 날을 새웠다. 타국에서의 기도와 회

개로 나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귀국길에서 심중에 들려온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다.”

주님은 나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이 참 목적이셨다. 그 이후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집 앞 교회에라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더 견고하고 튼튼해진 주님의 양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지팡이로 인해 주님이 주신 푸른 초장 위를 건강하게 거닐고 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필요에 따라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청소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8월 6(월)~8일(수)

청년대학부 수련회
8월 9(목)~11일(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